

# 모든 것은 변하는 것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에 화장실  
입구의 남·여 표시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화장실문화학회의 이사  
조 의 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고있지만 우리의 생활도 한 시점에서 끊어보면 변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일정 간격을 갖고 보면 계속 변화하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장실 입구의 남·여 표시도 예외일수 없는 것 같다.

화장실만 보아도 그렇다.

우선 명칭 자체가 '뒷간', '변소' 등의 원초적 표현에서 '해우소', '정량' 등의 운치있는 이름이 장소에 따라 쓰여지고 요즘은 국제화에 따라 'Restroom', 'Toilet', 'Latrine' 등의 외래어 명칭이 유행을 이루고, 한국적 표현으로는 광의의 '화장실'이라는 이름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화장실'이라는 명칭에 대체되는 새로운 이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 지역과 환경에 따른 입구 표시의 변화

지난 12월 초 서울시내 음식점의 우수화장실 평가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외국인 많이 찾는 대표적인 4곳(인사동, 명동, 이태원, 압구정동)에 위치한 80여 곳의 화장실을 돌아보는 코스였다.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면들을 볼 수 있었지만 특히, 화장실 입구를 알리는 남·여의 표시방법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남(청색)', '여(붉은색)', 혹은 '男', '女'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것이 발전하여 '남'과 '여'를 그림(픽토그램)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지금도 공중화장실이나 오피스 빌딩에서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있는 곳에서는 'MAN', 'WOMAN'의 표시방법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장실 내부의 업소안내 표지판 ▶  
액자하나에도 세심한 배려를 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번 음식점 화장실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을 접하였기에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역시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인사동 거리에서는 주로 한국인형을 모델로 하여 남·여를 표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어느 전통한식 음식점에서는 옛날 아기 출산 시 대문에 금줄을 걸어놓듯 고추(남자)와 숯(여자)을 새끼줄에 피어 부착해놓은 재미있는 표현방법도 있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명동에서는 화려하고 율동적이며 직접적인 표현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런가하면 외국인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이태원의 경우는 멋있고 세련된 양복과 양장의 모습으로 혹은 고대 이집트의 남·여의 모습으로 표시하고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

한편 강남의 대표적 거리인 압구정동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외부건물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을

화장실까지 연관시키고 있었다.

어느 곳이든 좀 더 특징적이면서도 남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역력했다.

#### 입구 표시에도 섬세한 배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표시방법들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단지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글자보다는 픽토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사용자는 눈에 잘 띄고, 보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시방법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천연한다면 지역적인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 또는 건물과의 연관성 등을 갖는 표시판을 만들어 놓은 화장실을 만날 때에는 만든 사람의 섬세함과 이용자에 대한 배려감까지 느낄 수가 있어, 훨씬 기분 좋게 그리고 여유있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다.

